

## 1 지원취지 및 접수현황

### ○ 지원취지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초 공연예술 분야 소극장을 지원하여 공연단체와 개인 예술가가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올 초에 9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2020년 지원대상 선정을 마쳤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극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소극장이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 40억 원을 확보, 추가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추가공모는 지난 6월 소극장 긴급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던 1차 추가공모에 이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장의 기획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에 방점을 두고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추가공모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장의 피해 경감을 위해 지원한다는 점이 동일하지만 특히 이번 공모는 기초 공연예술 분야의 기획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상이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로 조심스럽게 공연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6개월 넘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1차 추가공모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공연장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인건비, 공연장 임차료 등의 운영비는 공연 제작에 수반되는 운영비로 보아 지원금액의 최대 30%, 50% 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비 책정 기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수준보다 상향 조정하였고 정시공모와 1차 추가공모 선정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 ○ 접수현황

공연장 기획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공모에는 총 219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정시공모와 1차 추가공모 선정단체가 약 88.1%(197건)로 높은 신청률을 보였으며 2차 추가공모 신규 신청단체는 약 11.9%(22건)였습니다. 최소한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였던 1차 공모와는 달리, 특정 지원조건과 세부 심의기준이 있었음에도 200개 이상의 공연장에서 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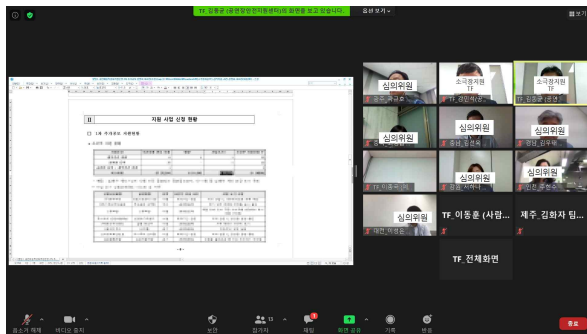
한편 신청 공연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공연장이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신청 분야의 경우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전 분야에서 신청한 가운데 연극이 219건 중 145건으로 전체 지원신청건수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 2 지원대상 선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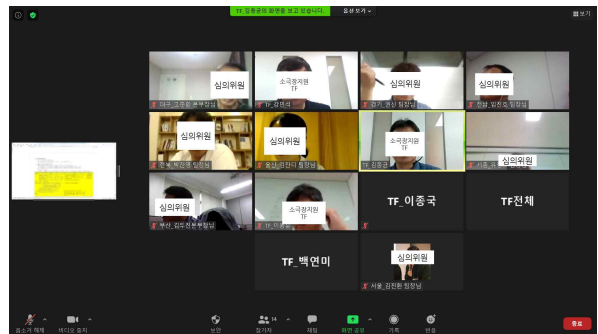
지원대상 선정은 1) 심의위원 대상 온라인 사전 설명회, 2) 심의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3) 온라인 지원심의 회의 개최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심의위원 대상 온라인 사전 설명회

지원심의를 앞둔 9월 초중순경,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강화됨에 따라 지원심의는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자리에서 의견을 나눌 수는 없지만 심의방향에 대해 충분히 토의하고 공통된 관점에서 심의를 진행하고자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 및 회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 설명회는 9. 18.(금)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이때 참여하는 심의위원은 공연예술 분야 및 소극장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광역 문화재단 소속 간부 및 선임 직원 17인(1차 추가공모 심의위원의 94% 연속 참여)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지원내용과 더불어 지원신청 현황, 심의계획 및 방향성을 심의위원에 설명하였고, 정성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개별 심의위원의 주관울 최소화 하고자 적정한 평가 수준과 판단 근거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서면 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점수가 반영되는 만큼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전 설명회 모습(오전)>



<사전 설명회 모습(오후)>

### 2) 심의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개별 신청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량기준과 정성기준을 각 50%씩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정량기준은 그동안의 공연장 운영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연건수 및 공연일수, 자체 기획 공연 진행 여부, 그리고 공연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세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정성기준은 향후 공연장 운영 계획에 있어 구체성과 지원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프로그램 및 예산 집행계획, 기초 공연예술에 대한 기여도를 주요하게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평가내용과 배점을 기준으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민간소극장 긴급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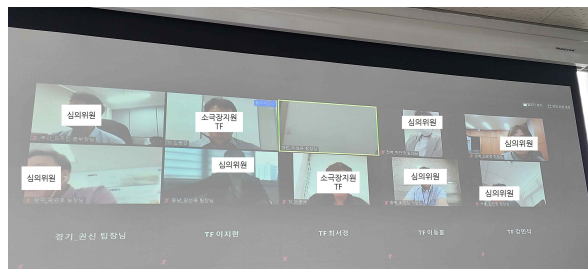
TF에서는 정량평가를, 개별 심의위원은 정성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각 심사사항을 기준으로 219건의 지원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점한 결과를 TF에 제출하였으며 TF에서는 평가점수를 취합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심의 진행을 위하여 지원심의 회의 개최 전 심의위원에는 개별 심의위원의 정성평가 채점에 따른 평균점과 표준편차 등을 공개하여 심의위원별 평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 온라인 지원심의 회의

정성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은 뒤, 온라인 심의회의는 9. 24.(목) 개최하였습니다. 심의회의 당일에는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공개하였고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토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하였던 사안은 선정 공연장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2차 추가공모 지원신청액 총합은 3,636백만 원으로 총 사업예산인 1,470백만 원의 2배 이상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1차 긴급지원 공모의 경우 선정률이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공모는 예산규모와 지원신청액을 고려하였을 때 1차 공모 대비 지원 가능한 범위가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점과 본 사업의 지원취지를 고려하여 선정 공연장의 지원금액을 일정 수준 축소하여 더 많은 수의 공연장을 지원하는 방향에 의견이 모였고,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신청액 기준 72% 비율로 일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금액 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신청하였던 단체에는 1,440만 원, 1,500만 원 신청단체는 1,080만 원, 1,000만 원 신청단체는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심의 회의 모습>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청단체가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혹은 본 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총 124건의 신청단체에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 3 2차 추가공모에 대한 종합의견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 공모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올 초에 추진한 공모는 예술적 수월성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하기 위함이었다면, 이후 두 번의 공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민간 소극장을 현 상황에서 지탱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지원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서 추진한 1차 추가공모를 통해 241개의 공연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연장 형태와 운영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국 곳곳의 민간 공연장이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활동 기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서 심의기준과 더불어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부분은 전국의 크고 작은 공연장이 어떻게, 그리고 함께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에 관객 규모나 지역적 여건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할지라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공연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적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공모는 지원신청 규모 대비 지원 가능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의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선정 공연장의 지원금액을 일정 수준 축소하여 더 많은 수의 공연장을 지원하는 방향에 의견이 모였고, 지원신청액을 일부 감액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공연장들이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음을 알립니다.

최근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듯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공적지원 영역에서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점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역시 예외가 아니며 늘어나는 공적지원제도가 오히려 부정수급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1차 추가공모 사업의 경우 신뢰에 기반하여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번 사업은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차 추가공모에 선정된 124개 공연장은 필수적으로 지원금 사용내역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다만 정산 절차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자 e나라도움을 통하지 않고 별도의 양식을 제공하여 집행내역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을 주관하는 민간소극장 긴급지원TF에서는 개별 공연장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서면, 현장 조사를 통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단체는 지원신청 단체 가운데 우위를 점하여 선정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 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서는, 관객과 만나기 위해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는 공연장의 갖가지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연이 취소되거나 영상으로 대체되는 가운데 곳곳이 공연을 올리고 관객을 맞는 공연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창작자와 관객이 만나는 방식이 어떻게 변모할지,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팬데믹 시대에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공연예술계는 위기에 직면하여 자구책을 찾고 적용할 방법을 더듬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묵묵함으로 자리를 지키며 관객을 맞이하고 있는 공연장의 묵묵함이 지금의 고비를 뛰어넘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끝으로 본 사업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